

사망의 그늘과 어둠 사이:

צלמות에 관하여

배선복*

1. 들어가며

시 23:4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번역으로 인해 잘 알려진 히브리어 צלמות(*salmāwet*)은 구약에 18회 등장한다.¹⁾ 마소라의 모음 부호 이전에는 이미 칠십인역 전통이 대부분의 צלמות을 צל(*śel*, 그림자)과 מות(*māwet*)의 합성어로 보았다. 그러나 라쉬(Rashi)를 비롯한 몇몇 중세 유대교 주석가들이 이미 צלמות은 아랍어에서 발견되는 “어둠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과 같은 어원인 II צלם에 추상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명사 어미인 -ūt가 붙은 *šalmūt*으로 보았고,²⁾ 현대에 와서는 다른 셈어의 동일한 어근으로 인해 이 견해가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윌리엄슨(H. G. M. Williamson)은 여러 학자의 의견을 종합하며, *salmāwet*이 아니라 *šalmūt*을 선호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했다.³⁾ 첫째, 성경에서 그림자(צל)는 보통 ‘보호’ 같은 긍정적 은유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가 죽음(מות)과 함께

* 서울신학대학교 강사, 구약학

1) 사 9:1; 렘 2:6; 13:16; 암 5:8; 시 23:4; 44:20; 107:10, 14; 욥 3:5; 10:21-22; 12:22; 16:16; 24:17(2회); 28:3; 34:22; 38:17. 사 9:1과 시 44:20은 한글 성경에서 각각 사 9:2와 시 44:19이다. 본 연구는 히브리어 성경과 번역 성경의 절 번호에 차이가 있을 때, 히브리어 성경을 따라 표기할 것이다.

2) Mayer I. Gruber, *Rashi's Commentary on Psalms* (Leiden: Brill, 2004), 324.

3) H. G. M. Williamso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Isaiah 6-12*, ICC (London: T&T Clark, 2018), 363-366.

나와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고대 근동 문학과 구약에서 있을 법하지 않다.⁴⁾ 둘째, *šalmāwet*은 주로 어둠의 맥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예: 사 9:1; 램 13:16; 암 5:8; 시 107:14; 욥 3:5; 10:21, 22; 12:22; 24:16-17; 28:3; 34:22).⁵⁾ 셋째, “어둡다”라는 뜻을 가진 II צלם의 동족어는 아카드어, 아랍어, 에티오피아어 등에서 널리 발견되고, 최근에는 우가리트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되었다.⁶⁾ 이에 더해, לחם צלמות과 같이 일반적인 연계형, צל מות(*sēl māwet*)으로 기록된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두 개의 명사를 한 단어처럼 항상 붙여 쓰는 합성어는 보통 인명이나 지명 같은 고유명사인 데(예: חצרמות, עזמות, *šalmāwet*이 고유명사라는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이 견해를 따르는 학자들은, 원래 *šalmūt*였던 단어가 후대에 미드라쉬적 민속 어원(folk etymology)으로 재해석되어, “사망의 그늘(*šalmāwet*)”이 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šalmūt*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근거에는 아무런 약점이 없는 것일까? 위에 언급된 근거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šalmūt*이 아닌 *šalmāwet*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⁷⁾ 본

4) 참조, August Dillmann, *Hiob: Erklärt*, 4. Aufl., KEHAT (Leipzig: Hirzel, 1891), 24; Pierre Bordreuil, “A l’ombre d’Elohim,” *RHPR* 46 (1966), 372-387.

5) 참조, Bordreuil, “A l’ombre d’Elohim,” 387, 390; I. H. Eybers, “The Root Ṣ-L in Hebrew Words,” *JNSL* 2 (1972), 23-36; Chaim Cohen, “The Meaning of צלמות ‘Darkness’: A study in Philological Method,” Michael V. Fox, et al., eds., *Texts, Temples, and Traditions: A Tribute to Menahem Haran*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6), 287-309. 또한 August Dillmann, *Hiob: Erklärt*, 3. Aufl., KEHAT (Leipzig: Hirzel, 1869), 25를 보라. 위에 인용한 아우구스트 딜만의 욥기 주석 4판의 요지는 구약 전반에서 그늘/그림자가 “보호”의 의미를 가지기에 צלם이 צל이 포함된 합성어가 아니라는 것이고, 3판의 요점은 더 오래된 용어인 *šalmūt*이 특별히 스올과 관련된 “깊은 어둠”을 의미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šalmūt*을 צל과 מות의 합성어로 오해하기 쉬웠다는 것이다. 딜만의 욥기 주석을 인용하지 않으면서, 최근 윌리엄슨도 비슷한 주장을 폈다. Williamson, *Isaiah 6-12*, 365-366.

6) 참조, Giovanni Mazzini, “On the Meaning of *šalmāwet*: A Discussed Word in the Old Testament,” *SEL* 16 (1999), 79-83.

7) 대표적으로, Th. Nöldeke, “צלמות und צלם,” *ZAW* 17 (1897), 183-187; J. Hehn, “צלמות,” *Orientalistische Studien: Fritz Hommel zum sechzigsten Geburtstag am 31. Juli 1914 gewidmet von Freunden, Kollegen und Schülern*, 2 vols. (Leipzig:

연구는 *šalmūt*을 주장하는 근거가 아직 *šalmāwet*에 대한 지지를 폐기해야 할 만큼 확실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히브리어 שְׁלֹמֹות은 칠십인역과 전통적인 이해를 따라, שָׁל and מוֹת의 합성어 *šalmāwet*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 합성어의 מוֹת은 최상급 표현이고 שָׁל은 ‘어두운 그들’이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합성어 שְׁלֹמֹות이 기본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들”이고, 문맥에 따라 מוֹת이 “그들”을 수식하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⁸⁾

2. 연구 범위와 방법론

본 연구는 윌리엄슨이 정리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근거를 반박하는 분석에 집중할 것이다. 이는 세 번째 이유가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שְׁלֹמֹות의 어근으로 여기는 II שָׁל과 같은 원시 썸어 어근 *θ-l-m*이 다른 썸어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שְׁלֹמֹות이 *šalmūt*이고, “어둠”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주장의 부수적인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⁹⁾ 비교 썸어학적인 논증에서, 각각의 썸어를 같은 언어의

J. C. Hinrichs'sche Buchhandlung, 1917-1918), 2:79-90; James Barr, “Philology and Exegesis: Some General Remarks, with Illustrations from Job,” *Bible and Interpretation: The Collected Essays of James Barr*, 3 vo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3:725-744; Walter L. Michel, “šLMWT, ‘Deep Darkness’ or ‘Shadow of Death?’” *BR* 29 (1984), 5-20; David Van Acker, “שְׁלֹמֹות, An Etymological and Semantic Reconsideration,” *JNSL* 43 (2017), 97-123. 대표적인 국내 시편 주석들은 시 23:4에서 개역개정을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번역을 유지한다. 참조, 김정우, 『시편 주석 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620-621; 차준희, 『시인의 영성 1』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221-222.

8) 시편 일반, 혹은 시편에 등장하는 특정 단어에 대한 번역에 관한 선행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하경택, “루터의 성경과 번역: 시편 성경 번역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22 (2017), 63-90; 김창대, “시편 1권의 문맥에서 본 시편 9-10편의 “아나브”(אָנָב)의 의미,” 『*Canon&Culture*』 27 (2020), 77-108.

방언인 것처럼 다루지 않고, 독립된 언어로서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제임스 바아(James Barr)의 경고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¹⁰⁾ 어떤 썸어에 있는 어근과 단어가 반드시 다른 썸어에도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¹¹⁾ 또한 필요 없이 복잡한 설명을 만들지 말라는 오컴의 면도날을 고려할 때, 히브리어에서 존재 여부가 논란이 되는 II צלם 어근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צלמות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설명이 더 나은 설명이다. 또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최근 많이 비교되는 우가릿어의 *zlm*과 *zlm̥t*도 원시 썸어 *θ-l-m*에서 온 것이라고 확신하기에는 더 밝혀져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다. 기존의 연구가 이점을 잘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량상, 이 부분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¹²⁾

고유 명사가 아닌 보통 명사가 히브리어에서 합성어로 사용된 경우가 있는가라는 의문 역시, 그리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바아와 데이비드 판 애커(David Van Acker)는 צלמות의 의미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지만, 이 단어가 원래 신화적 장소를 의미하는 고유 명사였다가, 나중에 비신화화된 보통 명사라고 보는 점에서는 일치한다.¹³⁾ 이것은 손쉬운 설명이지만, 아래에서 드러나는 본 연구의 결론과는 맞지 않는다. 본 연구는 오히려 צלמות이 보통 명사로 시작했지만, 이 보통 명사가 철자나 발음 때문에 쉽게 신화적 의미(사후 세계)로 의미의 변환이 일어났을 거라고 추론하기

9) 재구성된 원시 썸어를 비롯하여, 주요 썸어의 자음 음역 표기는 John Huehnergard, *An Introduction to Ugaritic* (Peabody: Hendrickson, 2012), 24를 따른다.

10) Barr, "Philology and Exegesis," 3:730.

11) II צלם 어근이 히브리어에 존재한다는 증거로 주장되는 성경의 단어는 צלמות과 시 39:7(6)의 צלם이다. 이 중 39:7(6)의 צלם의 어원이 II צלם이라는 주장에 관한 반대는 다음을 참조하라. 배선복, "누가 그림자처럼 다니는가? 시 39:7(6)의 צלם에 관한 비교 썸어학적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34 (2024), 7-30.

12) 우가릿어 증거에 대한 반론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D. J. A. Clines, "The Etymology of Hebrew *Selem*," *JNSL* 3 (1974), 24; Van Acker, "צלמות, An Etymoloical and Semantic Reconsideration," 103-107; 배선복, "누가 그림자처럼 다니는가," 19-23.

13) Barr, "Philology and Exegesis," 3:738-739; Van Acker, "צלמות, An Etymoloical and Semantic Reconsideration," 113-114.

때문이다. 그러나 합성어인 보통 명사가 히브리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점은 *šalmāwet*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확한 의미에 관한 논의는 있지만, בלעל은 대체로 합성어로 받아들여진다.¹⁴⁾ 히브리어를 넘어가면, 페르시아 시대 이집트 지역에서 사용된 공용 아람어(Official Aramaic)에서 소유격 연계형으로 나와야 하는 여러 명사가 합성어로 표기된 사례들이 있다.¹⁵⁾ 이러한 증거들은 צלמות이 합성어인 보통 명사라고 해도, 히브리어와 다른 셈어에서 전례가 없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약 본문에 צלמות이 나올 때, 본문의 맥락과 의미를 고려하여 צלמות의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백 년도 더 전에 J. 헨(J. Hehn)이 전통적 이해인 “사망의 그늘”을 주장하며 구약 본문을 자세히 다루었다.¹⁶⁾ 헨 전후에도, 비교적 소수일지라도 그 이름의 무게가 적지 않은 학자들이 전통적인 이해를 강력하게 지지했다. 그러나 므나헴 하란의 기념 논문집에 실린 하임 코헨(Chaim Cohen)의 연구는 건전한 방법론과 건실한 주석으로 צלמות이 단순히 “어둠”이라는 뜻에 불과하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¹⁷⁾ 그 이후에도 몇몇 연구들이 더 나왔지만, 코헨의 연구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본 논문은 코헨과 그의 연구를 주 대화 상대로 삼았다. 그렇지만 코헨의 연구와 대화할 때, 코헨의 연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다른 많은 학자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각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코헨의 연구 결과를 재고하기 위해, 히브리어의 최상급 표현 방식, 아람어 문헌, 히브리 시 평행법의 특징을 연구하여 도움을 얻었다.

14) 폴 주옹, 타카미추 무라오카, 『주옹-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옮김, 개정본 (서울: 기혼, 2022), 330(\$87c). HALOT과 BDB도 이 단어를 합성어로 간주한다.

15) H. G. M. Williamson, “Review of *Aramaic Texts from North Saqqāra with Some Fragments in Phoenician* by J. B. Segal” *JEA* 73 (1987), 267; Williamson, *Isaiah 6-12*, 365 n. 31. 윌리엄슨은 제국 아람어(Imperial Aramaic)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공용 아람어(Official Aramaic)와 같은 용어이다.

16) Hehn, “צלמות.”

17) Cohen, “Meaning.”

3. צלמות의 어원과 용례

윌리엄슨이 צלמות이 *šalmūt*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순서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두 용례에 관한 것이다. 전통적인 독법인 *šalmāwet*을 폐기해야 한다고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던 코헨은 용례를 살피는 방법과 어원을 추적하는 방법을 면밀히 구분하고, 의미는 용례에 관한 연구로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צלמות의 의미를 구약 본문의 맥락을 통해 먼저 결정해야 하고, 어원을 밝히는 것은 그다음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צלמות이 나오는 열여덟 개의 문맥과 시적 평행구를 고려할 때, צלמות은 단지 “어두움”이라는 의미이고, צל이나 מות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¹⁸⁾ 특히 문맥과 시적 평행상으로 “어두움”이라는 의미가 분명한 열세 개의 צלמות을 바탕으로, 헨이나 바이가 “어두움”이라는 의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다섯 번의 צלמות에 대해서도¹⁹⁾ 문맥상 “어두움”이 가장 적합한 의미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그는 욥 38:17에서 “죽음”을 뜻하는 מות과 צלמות의 평행이 צלמות이 합성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욥 38:17과 10:21-22는 צלמות이 사후 세계와 연결되는 유일한 경우이다. 특히 10:21-22절의 ‘돌아올 수 없는 어두운 땅’이라는 묘사는 아카드어 문헌에서 ‘돌아올 수 없는 길에 있는 어두운 집’이라는 묘사와 놀랍도록 비슷하다. 그러므로 38:17의 “죽음의 문”과 “צלמות의 문”의 평행은 10:21-22에 나오는 스올과 어두움(חשך)의 평행을 고려할 때, “죽음의 문”과 “어두움의 문”의 평행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여기서, צלמות에 대하여 나머지 경우와 다른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²⁰⁾

코헨의 용례 분석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 그러나 의미가 곧 어원은 아니기 때문에, 코헨은 자신의 용례 연구와 일치하는 어원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그는 צלמות의 어원에 대한 네 가지 가설을 비교한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18) Cohen, “Meaning,” 287-291.

19) 참조, Barr, “Philology and Exegesis”, 3:736-737.

20) Cohen, “Meaning,” 298-300. 이미 Dillmann, *Hiob*, 3. Aufl., 25.

“사망의 그늘”이라는 의미의 *šalmāwet*이다. 코헨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용례 연구를 통하여 צלמות의 의미가 “사망의 그늘”이 아니라 “어둠”인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²¹⁾ 두 번째 가설을 건너뛰고, 세 번째 가설을 먼저 살펴보면, צלמות이 II צלם 어근에서 온 “어두움”이라는 추상 명사 *šalmūt*이라고 본다. 이는 중세 유대 주석가들 사이에서 조금씩 고려되다가, 문헌학적, 비교 셈어학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현대 학자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가설이다. 이것은 코헨의 용례 연구와 잘 조화될 수 있고, 코헨도 기본적으로 이 어원을 거의 인정한다. 하지만, 이 어원은 어떻게 *šalmūt*가 후대에 *šalmāwet*으로 변형되었는지 잘 설명하지 못한다.²²⁾ 그래서 코헨은 네 번째 가설로, -ōt가 붙은 *šalmôt*을 צלמות의 어원으로 제시한다.²³⁾ 마지막으로 나오는 -môt이 *māwet*의 연계형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는 *šalmôt*이 쉽게 *šalmāwet*으로 변형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ōt가 붙은 다른 추상 명사를 비롯하여, 특히 어두움과 관련된 단어인 אפלה에 -ōt가 붙은 'āpēlōt이 *šalmôt*의 존재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본다.²⁴⁾ 코헨의 견해가 맞다 해도, 이 마지막 논증은 필수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šalmôt*이 *šalmāwet*으로 오해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매개체가 소리로 전수된 전통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자음 본문을 눈으로 읽고도 얼마든지 그러한 변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šalmūt*이든, *šalmôt*이든 코헨의 견해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둠”이라는 의미의 II צלם에서 파생된 명사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šalmūt*이나 *šalmôt*이 코헨의 용례 분석과 일치하는 유일한 어원은 아니다. 위에서 생략한 두 번째 어원은 코헨의 용례 분석과 어긋나지 않는다. 이 어원은 D. 윈튼 토마스(D. Winton Thomas)가 제안했다. 토마스는 히브

21) Cohen, “Meaning,” 302-303.

22) Cohen, “Meaning,” 305-306.

23) 히브리어 *māwet*의 연계형이 *môt*인 것을 기억하라.

24) Cohen, “Meaning,” 306-307. 어떤 학자들은 -ōt를 여성 복수 어미로 보지만, 코헨은 여성 단수 추상 명사화 어미라고 주장한다. 참조, Bruce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120-121 (§7.4.2a); 주웅-무라오카, 『주웅-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637(§136c).

리어 성경에서 엘이나 엘로힘 같은 신명이 최상급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성경에서 엘, 엘로힘 등의 신명이 종교적 어감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일반적인 의미로 최상급을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았다.²⁵⁾ 하지만 מוֹת은 신명으로서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로서 최상급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말에서도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 매우 배고프다는 의미인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심한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⁶⁾ 삼상 5:9와 5:11이 이 주장을 생생하게 증명한다. 삼상 5:9에서 “심히 큰 환난(מְהוּמָה גְּדוֹלָה מְאֹד)”이라는 표현은 5:11에서 “사망의 환난(מְהוּמָה מוֹת)”으로 대체된다.²⁷⁾ 후자는 물리적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 죽겠다”와 같은 수사학적 표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토마스는 מוֹת의 צִלְמוֹת에 더 이상 문자적인 죽음이라는 뜻은 들어있지 않고, “심한”이라는 뜻만 사용되기 때문에, “사망의 그림자”라는 번역 자체는 반대했다. 시편 23:4의 예가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듯이, 이 합성어는 “죽음”이나 “지하 세계”를 지칭하지 않고, 언제나 “깊은 어둠(thick darkness)”이나 “깊은 그림자(deep shadow)”라는 뜻으로만 사용된다. 그러므로 그는 이 합성어가 의미적으로는 II צִלְם과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토마스와 달리, מוֹת의 צִלְמוֹת을 우가릿 신화로부터 잘 알려진 바알의 라이벨, 못투(*Mótu*)로 보고, 이 신명이 최상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스비 린(Svi Rin)에 따르면, 성경에는 מוֹת을 우가릿 신 못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중 어떤 것들은 신명이 아니라 엘이나 엘로힘처럼 최상급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보았다.²⁸⁾ 그러나 못투는 신화에서는

25) D. Winton Thomas, “A Consideration of Some Unusual Ways of Expressing the Superlative in Hebrew,” VT 3 (1953), 특히 215, 217.

26) Thomas, “Superlative,” 209-224; D. W. Thomas, “Some Further Remarks on Unusual Ways of Expressing the Superlative in Hebrew,” VT 18 (1968), 120-124. D. W. Thomas, “צִלְמוֹת in the Old Testament,” JSS 7 (1962), 191-200.

27) Thomas, “Superlative,” 221.

28) Svi Rin, “The מוֹת of Grandeur,” VT 9 (1959), 324-325. 참조, U. Cassuto,

사후 세계에서 활동하는 신이자 바알의 라이벌로 나타나지만, 우가릿 신명 목록과 제물을 받는 신의 목록에 등장하지 않는다.²⁹⁾ 즉, 못투는 우가릿에서 예배를 받는 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못투의 역할과 예배받지 못하는 그의 지위를 볼 때, 못투를 신이 아니라 악마(demon)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³⁰⁾ 못투의 이러한 위치를 고려할 때,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못투라는 신명이 최상급을 표현하는 신명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어떤 식으로든, מוֹת צֶלַם의 מוֹת이 צֶלַם을 수식하는 최상급 표현이라는 어원 분석은, 죽음이나 가나안 신 못투의 그늘/그림자가 아니라, *šalmūt*이나 *šalmôt*와 같이 어둠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코헨이 용례 분석으로 결정한 의미와 부합한다. 그럼에도 코헨은 이 어원을 부정한다. 그 이유는 “그림자” 혹은 “그늘”을 의미하는 צֶלַם을 은근슬쩍 “어둠”과 동일시 하는 것은 의미론적 비약이라고 보기 때문이다.³¹⁾ 구약과 다른 고대 근동 문헌에서 그늘(צֶלַם)이 주로 “보호”를 상징하는 긍정적인 단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³²⁾ 하지만, 구약에서 그늘(צֶלַם)은 ‘덧없음, 순간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³³⁾ 그러나 구약에서 “그늘”이 ‘보호’나 ‘덧없음’으로만

The Goddess Anath: Canaanite Epics of the Patriarchal Age, Israel Abrahams, trans. (Jerusalem: Magnes, 1971), 61-64.

29) Dennis Pardee, *Ritual and Cult at Ugarit*, WAW 10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2), 281-282; J. F. Healey, “Mot מוֹת,” in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Karel van der Toorn, Bob Becking, and Pieter W. van der Horst, eds., 2nd rev. ed. (Grand Rapids: Eerdmans, 1999), 598-599.

30) Healey, “Mot,” 600.

31) Cohen, “Meaning,” 304-305.

32) Dillmann, *Hiob*, 4th Aufl., 24; Bordreuil, “A l’ombre d’Elohim,” 372-387; Eybers, “Root Ṣ-L,” 27, 35-36; Giovanni Mazzini, “The Shining Shadow Lexical Observations on the Ugaritic Word ṢL,” *SEL* 16 (1999), 27-34; Romina Vergari, “Translation Techniques and Interpretative Phenomena in the Greek Version of the Hebrew Bible: A Study of the Figurative Use of the Noun צֶלַם ‘Shadow,’” *QULSO* 1 (2015), 180-183.

33) 참조, J. Schwab, “צֶלַם ṣēḷ, צֶלַל ṣālāl III; טָלַל ṭālāl I,” G. Johannes Botterweck,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12 (Grand Rapids: Eerdmans,

사용된다면, “깊은 어둠”이 “깊은 그늘”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다는 코헨의 의견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호를 의미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보호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숨기는 것을 뜻한다. 뜨거운 햇볕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 적이 나를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이 숨기에, 보호받기에 더 좋은 곳이다. 이것이 잘 표현된 본문이 사 16:3이다. 이 본문은 모압을 향한 경고인, 사 15:1-16:14에 속한다. 특히 사 16:14는 시온이 모압의 피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³⁴⁾ 이러한 맥락에서 사 16:3은 시온에게 대낮에 어두운 밤 같은 그늘(צל)을 만들어서(שיתי צללים בדרך צהרים) (כליל צלך בדרך צהרים) 피난민들을 숨겨주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그들이 어두운 밤과 개념적으로 연결되고 환한 대낮과 대조되며, 그들이 보호를 함축하는 이유가 어두운 성질 때문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것은 코헨의 용례 분석에서 צלמות이 어둠을 나타내는 단어와 평행을 이루고, 빛이나 아침을 뜻하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³⁵⁾ 그렇다면 “깊은 그늘”을 “깊은 어둠”과 동일시 하는 토마스의 번역은 의미론적 비약이 아니다. 차이점은, 여기서 그들의 어두움은 긍정적이고 צלמות의 어두움은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차이점을 상쇄할 수 있는 본문이 있다. 욥 34:22(“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צלמות이 없느니라”)는 צל과 צלמות의 의미를 조화시킨다. 구약에서 유일하게 צלמות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이 본문에서, 흑암과 צלמות은 그림자(צל)와 마찬가지로, 숨을 수 있는, 보호를

2003), 381; Vergari, “Translation Techniques,” 184-185.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전치사 כ보다는 전치사 כ와 함께 사용될 때, 이러한 부정적 함의를 가질 때가 많다. 시 102:11; 109:23; 144:4; 욥 14:2; 17:7; 전 6:12; 8:13; 대상 29:15를 보라. 물론 전치사 כ와 연결되어도 보호를 의미할 수 있고(사 32:2), 아무 전치사가 연결되지 않아도 보호를 나타낼 수 있다(시 121:5).

34) J. Blenkinsopp, *Isaiah 1-39: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19 (New York: Doubleday, 2000), 297, 299-300; J. J. M. Roberts, *First Isaiah: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5), 237.

35) Cohen, “Meaning,” 289-290.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남은 צלמות이 모두 부정적 어감을 내포하므로, 우리는 צל과 צלמות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동화되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질문에 답변이 필요하다. 정말로 צלמות이 צל과 מות의 합성어라면, 구약과 고대 근동 문학에서 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그늘(צל)이 어떻게 *šalmāwet* 안에서는 부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4. 엘레판틴 아람어 계약서에 나타난 단서

위 질문에 대한 가장 손쉬운 대답은 누구의, 무엇의 그림자냐에 따라 그림자의 성격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Th. 뉘더케(Th. Nöldeke)의 견해이다.³⁶⁾ 만약 מות이 정말 가나안 신 못투를 가리킨다면, מות을 최상급 수식어가 아니라, 그림자/그늘의 성격을 드러내는 수식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레반트 지역에서 못투는 죽음이나 사후 세계와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므로, 합성어 צלמות의 그늘은 못투의 소유이거나 아니면 못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그늘이다. 이러한 문법적 관계는, 이 합성어의 מות을 신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보통 명사로 간주해도 마찬가지이다.³⁷⁾

이러한 추론에 더해, “그늘/그림자”에 대한 유대인들의 추가적인 이해를 드러내는 문헌적 증거가 도움이 된다. 흔히 크렐링 5번(Kraeling 5 = TADAE B3.6)으로 알려진 아람어 문서는, 주전 5세기 말 엘레판틴의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작성되었다. 구약에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צל이 함축하는 또 다른 의미에 대한 단서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 파피루스는 자쿠르의 아들 메술람(Meshullam son of Zakkur)이 그가 소유한 여종인

36) Th. Nöldeke, “צלמות,” 특히 183-184.

37) 연계형의 용법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Waltke and O'Connor, *Introduction*, 145 (§9.5.1g), 149-150 (§9.5.3b); 주웅-무라오카, 『주웅-무라오카 성서 히브리어 문법』, 436-437 (§§129d, f).

타파메트(תַּפְמֶת)와 그녀의 딸 여호이쉬마(יְהוֹיִשְׁמָעִל)에게 자유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³⁸⁾ 이 문서의 8-9번 줄에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한다. “וְאַנְתִּי שְׁבִיקָה מִן טָלָא לְסַמְשָׁא וְיְהוֹיִשְׁמָעִל בְּרַחְכִּי”. 에밀 G. 크래링(Emil G. Kraeling)은 이것을 “그리고 당신은 태양 앞에서(?) 자유로워졌소, 당신 딸 여호이쉬마도 함께(and thou art freed before [?] the Sun, as well as Yehoyishma, thy daughter)”라고 번역했다.³⁹⁾ 자신이 직접 표시한 물음표가 암시하듯, 크래링은 טָלָא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자신이 없어 의도적으로 번역에서 누락하면서도, טָלָא를 그림자로 번역할 수 없다고는 확신한다.⁴⁰⁾ 하지만 어디서도 이 확신의 근거를 말하지 못한다.

이 טָלָא는 히브리어 צֶלַל과 함께 원시셈어 𐤌𐤋𐤀 어근에서 파생된 아람어 טַל(그림자, 그늘)에 아람어 정관사 어미가 붙은 강조형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그리고 당신은 그늘로부터 태양으로 풀려났소(and you are released from the shade to the sun)”라고 번역한다.⁴¹⁾ 여기서 그들은 노예 상태를, 태양은 자유를 뜻한다. 여기서 그늘이라는 단어가 위에서 살펴보았던 사 16:3에서처럼, 밝은 태양과 대조를 이루어 어두움을 상징한다. 자유가 필요한 노예 상태를 의미하는 그들은 여기서 부정적인 단어임에 틀림없다. H. L. 긴즈버그(H. L. Ginsberg)는 이 아람어 표현을 어둠이 속박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과 비교한다.⁴²⁾ 사 42:7이 긴즈버

38) Emil G. Kraeling, *The Brooklyn Museum Aramaic Papyri: New Documents of the Fifth Century B.C. from the Jewish Colony at Elephantine*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53), 178-187; Bezael Porten and Ada Yardeni, *Textbook of Aramaic Documents from Ancient Egypt*, 4 vols. (Winona Lake: Eisenbrauns, 1986-1999), 2:72-73.

39) Kraeling, *Brooklyn Museum Aramaic Papyri*, 181. 필자가 알기에, 이 파피루스의 해당 문구를 구약의 צֶלַלמוֹת과 연결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40) Kraeling, *Brooklyn Museum Aramaic Papyri*, 185.

41) Porten and Yardeni, *Textbook*, 2:73; H. L. Ginsberg, “The Brooklyn Museum Aramaic Papyri,” *JAOS* 74 (1954), 158.

42) Ginsberg, “The Brooklyn Museum,” 158. 참조, 사 42:7; 49:4; 61:1; 시 107:10, 14; 예 3:6.

그의 눈치를 가장 잘 보여준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가 감금과 속박이라는 이미지로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이와 반대로 눈을 뜨는 것과, 감옥이나 감방에서 나오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긴즈버그가 인용하는 이러한 구약 본문들은 어둠의 이미지가 속박이나 감금과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들이 어둠을 개념적으로 수반한다면, 그들 역시 감금과 속박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크렐링 5번에 반영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추론을 צל뿐만 아니라 צלמות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 9:1(“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צלמות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시 107:10(“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07:14(“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얹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는 어둠과 צלמות을 속박과 감금으로 연결한다. 속박의 맥락에서 흑암뿐만 아니라 צלמות도 나왔다는 사실 외에는, 이 본문들과 사 42:7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어둠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그늘이 מות이라는 최상급 표현에 의해 수식되는 합성어 צלמות의 의미를, “아주 어두운 그늘”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일 것이다.

크렐링 5번으로 유추한 그늘/그림자의 이미지를 צלמות에 투영할 때 발생하는 한 가지 장애물은, 크렐링 5번이 주전 427년 문서라는 것이다. 후대의 문서에 나타난 흔치 않은 용례를 구약의 단어에 대입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고대 아람어(Old Aramaic)와 공용 아람어(Official Aramaic) 문헌에 טל, צל, טלל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사례가 없을 뿐이다. 이러한 아람어 용례가 이전에는 없었고 후대에 갑자기 생겼다는 것이 더 빈약한 추론이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 문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문학적인 표현을 조여해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표현은 이전부터 잘 알려진 아람어

표현이었을 것이다. 침묵에 의한 논증이기는 하지만, 그늘/그림자의 이러한 어감이 아람어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구약에서 이미 어둠과 속박이 연관되고(사 16:3; 42:7), 어둠과 그늘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볼 때(사 16:3), 어둠과 관련된 그늘도 속박과 관련이 있다.

5. 시적 평행

코헨은 평행구에서 대체 가능한 단어들은 서로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만 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어둠, 빛, 아침 등을 나타내는 단어와 평행을 이루는 *עלמות*에서 *מזל*을 의미 구성 요소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견해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자칫 구약 시 문학의 평행법을 협소하고 완고하게 이해할 위험이 크다. 구약의 시 문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가 이미 평행법은 단순히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임스 L. 쿠겔(James L. Kugel)은 두 개의 행이 짝을 이루는(bicolon) 히브리 시의 둘째 행은 첫째 행의 단순한 재진술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는 히브리 문장의 평행구는 “A가 그러하고, 게다가, B도 그러하다(A is so, and what’s more, B is so)”의 의미를 나타내고, 둘째 행은 첫째 행을 강조하거나 분명히 하거나 확장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⁴³⁾ 이렇게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더 정확하고 유연하게 이해한다면, *מזל*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그늘/그림자가 어둠과 빛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들과 평행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델 베를린(Adele Berlin)은 심리 언어학의 도움을 받아 훨씬 더 정교하게 평행법을 탐구한다. 평행법은 단순히 의미상의 관련성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의미적 평행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평행이 눈에 잘

43) James L. Kuge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1-58.

떠는 것일 뿐, 평행구 뒤에는 평행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보았다. 베를린이 제시하는, 평행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요인들과 방식은 צלמות이 다른 단어와 평행으로 나올 때, 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특성 부가-소거 법칙은, 한 단어와 그 단어에 어떤 특징을 빼거나 더한 다른 단어로 짝을 만드는 원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원인을 부가하거나 소거해서 살해와 죽음, 가르침과 배움을 짝으로 만들 수 있다. 추상화를 더하거나 빼서 지식과 학교라는 짝을 만들 수도 있다.⁴⁴⁾ 이렇게 보면, 어둠(חֹשֶׁךְ) 다음에, 단순히 또 다른 어둠(*salmūt*)이 아니라, 어둠에 구체성을 더한 “그늘”, 거기에 또 강도를 추가한 “아주 어두운 그늘(*salmāwet*)”이 평행을 이루는 것은 히브리 시의 평행법상 매우 자연스러운 일임을 알 수 있다.

히브리적 평행법의 특징을 고려하면, צלמות의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사 9:1 분석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 9:1은 평행구를 통한 언어로 생생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העם ההלכים בחשך ראו אור גדול
ישבי בארץ צלמות אור ננה עליהם

어둠 속에 걷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매우 어두운 그늘이 있는 땅에 앉은 자들, 빛이 그들위에 비치었다. (사역)

“어둠 속”과 “매우 어두운 그늘(צלמות)이 있는 땅에”라는 두 전치사구와, “큰 빛(גדול)과”와 “빛(אור)”이라는 두 명사(구)가 의미상의 평행을 이룬다. 걷는 사람들(ההלכים)과 앉은/거주하는 사람들(ישבי)을 뜻하는 두 분사가 문법적 평행을 이룬다. 그러나 이 평행구는 단순히 유의어들의 반복이 아니다. “걷기”와 “앉기”가 대조된다. 이것은 시편 1:1의 걷기(הלך)-서기(רָשָׁע)-앉기(בִּישָׁב)의 상승 평행을 떠올리게 한다. 복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44) Adele Berlin,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Rev. and exp. ed. (Grand Rapids: Eerdmans, 2008), 73-74.

악인과 함께 걷다가, 서서 잠깐 머무르다, 마침내 앉아서 악인과 함께 거하며 동류가 된다. 첫 행의 어둠 속에 걷는 사람들은 아직 활동할 수 있고, 어둠을 지나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러나 צלמות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둠이 의미하는 속박에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이고 절망에 빠진 사람으로 묘사된다. 첫째 행에 나오는 큰 빛이 둘째 행에서 아무 수식어가 없는 빛으로 의미가 하강한 것 같지만, 두 번째 행의 הַנֶּנֶן라는 동사가 이를 상쇄한다. 이 동사는 단순히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신 현현과 관련된 강력한 빛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되며, 구원의 의미를 동반하기도 한다.⁴⁵⁾ 이렇게 볼 때 צלמות의 의미는 חשך보다 더 상승된 의미인 ‘깊은 어둠’ 즉 “매우 어두운 그늘”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외에도 첫 행에서 관사가 붙은 분사 절대형으로 사용된 הַהֹלְכִים과 평행을 이루는 יושבִי가 둘째 행에서 관사 없이 연계형으로 나오는 것, 목적으로 사용된 첫 행의 אור가 둘째 행에서 주어로 문법적 변환을 거치는 것 등은, 이 의미 상승의 평행구에 시적 리듬감을 더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צלמות이 합성어로 인식된 이후에는, 이 단어의 구성 요소인 מות도 저자나 독자에게 인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צלמות이 오직 운문으로 된 본문에만, 그것도 18회 중 14회가 시편과 욥기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운문은 각종 언어유희와 은유를 산문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어둠이라는 뜻보다 더 확장된 의미가 צלמות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헨의 용례 분석이 다소 극단적인 면이 있기는 해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코헨은 아카드어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욥 38:17을 분석하면서, 자신이 인용한 아카드어 문구에는 없는 언어유희가 욥 38:17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צלמות תראה) וְשַׁעֲרֵי מוֹת וְשַׁעֲרֵי צִלְמוֹת.⁴⁶⁾ 히브리어를

45) H. Eising, “נָהָה *nāḡah*; *נָהָה *nōḡah*; נָהָהוּ *nḡōhōi*,” G. Johannes Botterweck, ed., *TDOT* (Grand Rapids: Eerdmans, 1998), 9:186-187.

46) Cohen, “Meaning,” 298-300; Van Acker, “צלמות,” An Etymological and Semantic Reconsideration,” 112.

이는 독자나 청자가 מות과 צלמות의 시각적 혹은 음성적 유사성을 놓쳤을 리 없고, 저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우연히 이 평행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도,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חשך이 아니라, 읊기 외에는 구약 전체에서 8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צלמות을 굳이 사후 세계라는 의미로 사용하며 מות과 평행 시킨 것은, צלמות을 통하여 “죽음” 혹은 저승의 신 못투를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라고 보지 않기가 더 어렵다.⁴⁷⁾

6. 나가며

본 연구는 צלמות의 의미에 관하여 다시 살펴보았다. 비교 쉼어학에 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צלמות을 II צלם에서 파생된 *ṣalmūt*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지지를 얻고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는 전통적인 독법인 *ṣalmāwet*이 본래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통적인 이해처럼, צלמות을 צל과 מות의 합성어로 보았지만, 합성된 명사의 중심 의미는 צל에 있고 מות은 최상급이든 일반 명사나 신명이든, צל에 어떤 속성을 부가하는 수식어로 본다. 구약 전반적으로 צל은 보호나 덧없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5세기 말 아람어 문서가 “그늘(טל)”을 태양과 대조하면서 속박으로 보는 점, 구약에서는 어둠을 뜻하는 명사가 속박의 어감을 가질 수 있는 점, 어둠을 뜻하는 명사와 צלמות이 자주 평행되는 점을 관찰하면, צלמות의 צל은 어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구체화한 현상으로서의 그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צלמות이 주로 운문으로 된 본문에만 나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합성어는 기본적으로 “매우 어두운 그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운문에서 어둠이라는 단어와 평행한다. 이러한 관찰과 함께 히브리 시 평행구의 특징을 고려하면, צלמות이 단순한 어둠보다 강화된

47) 참조, Dennis Pardee, “Structure and Meaning in Hebrew Poetry: The Example of Psalm 23,” *MAARAV* 5-6 (1990), 251, n. 23.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은유와 언어유희를 많이 사용하는 운문의 특성상, זלמות은 מות의 다른 부정적 의미로 인해 속박이나 사후 세계를 암시하는 문맥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주제어>

시편, 평행법, 찰마벳/찰못, 어원 연구, 엘레판틴.

<Key Words>

Psalms, Parallelism, ṣalmāwet/ṣalmūt, Etymology, Elephantine.

* 접수일 2024년 8월 14일, 수정일 2024년 8월 23일, 게재 확정일 2024년 9월 12일

참고 문헌

- 김정우, 『시편 주석 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 김창대, “시편 1권의 문맥에서 본 시편 9-10편의 “아나브”(עֲנַב)의 의미,” 『Canon&Culture』 27 (2020), 77-108.
- 배선복, “누가 그림자처럼 다니는가? 시 39:7(6)의 צל־מֹות에 관한 비교 선풍학적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34 (2024), 7-30.
- 주용, 폴, 타까미추 무라오가, 『주용-무라오가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개정본, 서울: 기혼, 2022.
- 차준희, 『시인의 영성 1』,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 하경택, “루터의 성경과 번역: 시편 성경 번역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22 (2017), 63-90.
- Acker, David Van, “צֶל־מֹות, An Etymoloical and Semantic Reconsideration,” 『JNSL』 43 (2017), 97-123.
- Barr, James, “Philology and Exegesis: Some General Remarks, with Illustrations from Job,” *Bible and Interpretation: The Collected Essays of James Barr*, 3 vo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3:725-744.
- Berlin, Adele, *The Dynamics of Biblical Parallelism*, Rev. and exp. ed., Grand Rapids: Eerdmans, 2008.
- Blenkinsopp, Joseph, *Isaiah 1-39: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19, New York: Doubleday, 2000.
- Bordreuil, Pierre, “A l’ombre d’Elohim,” 『RHPR』 46 (1966), 368-391.
- Cassuto, U., *The Goddess Anath: Canaanite Epics of the Patriarchal Age*. Israel Abrahams, trans., Jerusalem: Magnes, 1971.
- Clines, D. J. A., “The Etymology of Hebrew Şelem,” 『JNSL』 3 (1974), 19-25.
- Cohen, Chaim, “The Meaning of צֶל־מֹות ‘Darkness’: A study in Philological Method,” Michael V. Fox, et al., eds., *Texts, Temples, and Traditions: A Tribute to Menahem Haran*,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6, 287-309.

- Dillmann, August, *Hiob: Erklärt*, 3. Aufl., KEHAT, Leipzig: Hirzel, 1869.
_____, *Hiob: Erklärt*, 4. Aufl., KEHAT, Leipzig: Hirzel, 1891.
- Eising, H., “נָגַהּ *nāḡah*; *נָגַהּ *nōḡah*; נְגֻהוֹת *nēḡōhōt*,” G. Johannes Botterweck,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9, Grand Rapids: Eerdmans, 1998, 186-187.
- Eybers, I. H., “The Root Ṣ-L in Hebrew Words,” *JNSL* 2 (1972), 23-36.
- Ginsberg, H. L., “The Brooklyn Museum Aramaic Papyri,” *JAOS* 74 (1954), 153-162.
- Gruber, Mayer I., *Rashi's Commentary on Psalms*, Leiden: Brill, 2004.
- Healey, J. F., “מֹת *moṭ*,” Karel van der Toorn, Bob Becking, and Pieter W. van der Horst, eds., *Dictionary of Deities and Demons in the Bible*, 2nd rev. ed., Grand Rapids: Eerdmans, 1999, 598-603.
- Hehn, J., “צַלְמוֹת,” *Orientalistische Studien: Fritz Hommel zum sechzigsten Geburtstag am 31. Juli 1914 gewidmet von Freunden, Kollegen und Schülern*, 2 vols., Leipzig: J. C. Hinrichs'sche Buchhandlung, 1917-1918, 2:79-90.
- Huehnergard, John, *An Introduction to Ugaritic*, Peabody: Hendrickson, 2012.
- Kraeling, Emil G., *The Brooklyn Museum Aramaic Papyri: New Documents of the Fifth Century B.C. from the Jewish Colony at Elephantine*,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53.
- Kugel, James L., *The Idea of Biblical Poetry: Parallelism and Its Histo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1.
- Mazzini, Giovanni, “The Shining Shadow Lexical Observations on the Ugaritic Word ṢL,” *SEL* 16 (1999), 27-34.
- _____, “On the Meaning of Ṣalmāwet: A Discussed Word in the Old Testament,” *SEL* 16 (1999), 79-83.
- Michel, Walter L., “ṢLMWT, ‘Deep Darkness’ or ‘Shadow of Death?’” *BR* 29 (1984), 5-20.
- Nöldeke, Th., “צַלְמוֹת und צַלִּים,” *ZAW* 17 (1897), 183-187.

- Pardee, Dennis, *Ritual and Cult at Ugarit*, Writings from the Ancient World 10,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2.
- _____, "Structure and Meaning in Hebrew Poetry: The Example of Psalm 23," *MAARAV* 5-6 (1990), 239-280.
- Porten, Bezalel, and Ada Yardeni, *Textbook of Aramaic Documents from Ancient Egypt*, 4 vols., Winona Lake: Eisenbrauns, 1986-1999.
- Rin, Svi, "The מוֹרֵת of Grandeur," *VT* 9 (1959), 324-325.
- Roberts, J. J. M., *First Isaiah: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5.
- Schwab, J., "עַל־ *ṣēl*; עַל־לֵל *ṣālal* III; טַלֵּל *tālal* I," G. Johannes Botterweck,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12, Grand Rapids: Eerdmans, 2003.
- Thomas, D. Winton, "A Consideration of Some Unusual Ways of Expressing the Superlative in Hebrew," *VT* 3 (1953), 209-224.
- _____, "Some Further Remarks on Unusual Ways of Expressing the Superlative in Hebrew," *VT* 18 (1968), 120-124.
- _____, "עַל־מוֹרֵת in the Old Testament," *JSS* 7 (1962), 191-200.
- Vergari, Romina, "Translation Techniques and Interpretative Phenomena in the Greek Version of the Hebrew Bible: A Study of the Figurative Use of the Noun עַל 'Shadow,'" *QULSO* 1 (2015), 179-203.
- Waltke, Bruce K.,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 Williamson, H. G. M.,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Isaiah 6-12*, ICC, London: T&T Clark, 2018.
- _____, "Review of Aramaic Texts from North Saqqâra with Some Fragments in Phoenician by J. B. Segal," *JEA* 73 (1987), 265-269.

<초록>

사망의 그들과 어둠 사이

-צלמות에 관하여-

배선복

(서울신학대학교, 강사)

본 연구는 히브리어 צלמות의 의미와 어원을 재검토한다. צלמות은 구약 성경에서 18회 등장하며, 전통적으로 ‘사망의 그늘’로 번역되었다. 점점 더 많은 학자가 צלמות이 ‘어둠’을 의미하는 II צלם에서 파생된 ṣalmút이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전통적인 이해처럼, צלמות이 합성어라고 주장한다. 이 합성어의 의미는 그림자, 그늘이라는 뜻을 기본으로 한다. 구약에서 그림자 혹은 그늘을 뜻하는 צל은 주로 “보호”라는 긍정적인 어감을 가지지만, צלמות의 צל은 어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다. 이를 알 수 있는 단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약 시문의 평행구에서 צלמות은 어둠을 뜻하는 명사와 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어둠은 속박이나 사후 세계 등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흔히 크렐링 5번이라고 불리는 엘레판틴의 한 아람어 파피루스에서 그들이 태양과 대비되고, 속박과 자유가 대비된다. 여기서 צלמות의 그늘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구약에서 어둠이 속박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어둠과 평행을 이루는 צלמות도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셋째, מות은 צל이라는 단어에 속성을 부과하는 수식어로 사용된다. 이렇게 분석된 צלמות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매우 어두운 그늘”이다. 그러나 수식어 역할을 하는 מות이 문맥에 따라 최상급을 넘어, 본래의 의미를 드러낼 수도 있다.

히브리시의 특징인 평행법을 고려하면, 이렇게 이해된 צלמות(매우 어두운 그늘)은 어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확장하고 강조하는데 적절한 단어이다.

<Abstract>

Between the Shadow of Death and Darkness:
On צלמות

Dr. Sun Bok Bae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Lecturer)

This study reexamines the meaning and etymology of the Hebrew word צלמות. Appearing eighteen times in the Old Testament, צלמות has traditionally been translated as “shadow of death.” Increasingly, scholars argue that צלמות is *šalmūt*, meaning “darkness,” derived from II צלם. This study refutes such claims, asserting instead that צלמות is a compound word, consistent with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fundamentally related to “shadow” or “shade.” In the Old Testament, while the word צל (shadow) often carries a positive connotation of “protection,” the צל in צלמות is closely associated with darkness, bearing a negative connotation. This is evidenced by several factors. First, in the parallelism of Hebrew poetry, צלמות frequently pairs with nouns denoting darkness, which can imply bondage or the afterlife. Second, in an Aramaic papyrus from Elephantine, often referred to as Kraeling 5, “the shade (טלא)” contrasts with the sun, and bondage contrasts with freedom, providing clues to the meaning of צלמות. The fact that darkness in the Old Testament can be associated with bondage suggests that צלמות, paralleling darkness, likely shares similar implications. Third, מות (death) serves as an attributive modifier to צל (shadow). The analyzed meaning of צלמות is essentially “a very dark shadow.” However, the modifier מות, depending on the context, can go beyond its role as a superlative and reveal

its original mean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parallelism in Hebrew, צלמות (deep shadow) understood in this way is an appropriate term to expand and emphasize the meaning of the word “darkness.”